



전북대 총동창회, 23명에 연말 장학금 지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연말을 맞아 '후배사랑' 실천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총 23명의 학생에게 2,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총동창회는 최근 열린 2025년 제2차 상임이사회 및 송년회에서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장학생들을 초청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장학금은 동창회 장학생 10명을 비롯해 학생자치기구 우수활동 장학생 10명, 故 신민 한승헌 장학생 3명 등 총 23명에게 전달됐다.

전북대 총동창회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비롯해 유학생 장학금,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 등 다양한 학생층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6·25전쟁 참전·지원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지원한 데 더해, 올해는 '고려인 후손 장학금'을 신설해 러시아 출신 유학생 1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창회는 이를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세계와 연대하는 작은 실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전북대 총동창회는 내년 1월 15일 오후 5시 30분 모교 진수당에서 2026년 신년교례회 및 동문대상 시상식을 열고 새해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부안 진서면·울산 중구 복산동, 자매결연 협약

부안군 진서면과 울산시 중구 복산동이 지난 9일 동농교류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연태 진서면장, 안병관 진서면 주민자치위원장, 목봉석 복산동장, 천경용 복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진서면과 복산동은 지역 특성을 살린 공동 프로그램 발굴, 주민 중심의 교류 활성화, 행정·문화·관광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소프트아쿠아,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는 (주)소프트아쿠아(대표 장희정)가 지난 9일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500만원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해당 성금을 복지안전망 강화 사업에 사용하여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의용소방대연합회,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김제시는 김제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김태열)가 10일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제의용소방대 연합회 김태열 회장을 비롯해 회원 8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향 사랑하는 마음, 전북을 움직이다’

전북애향본부, 제46회 애향상 시상식… 본상에 이종근·이형구씨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한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9일 전주 그랜드 힐스튼 데이지스 홀에서 '제46회 전북애향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오랜 기간 고향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이어온 수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정 총재를 비롯해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소장, 임규태 전북친필봉사회 회장, 지역 언론사 대표, 경제계 인사, 전북애향본부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 전북애향대상 본상은 문화사회자 이종근(69) 씨와 전북사인협회 회장이자 전북법무사회 회장인 이형구(68) 씨에게 돌아갔다. 특별상과 대상 부문은 해당자가 없어 선정되지 않았지만, 두 분상 수상자의 공적만으로도 전북인의 자긍심을 충분히 일깨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전북신문 문화부장 겸 편집부국장인 이종근 문화사학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전북 곳곳의 숨은 역사와 문



화 현장을 발굴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생을 바쳐왔다.

전북사인협회 회장이자 전북법무사회 회장인 이형구 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지역 문화·법률·역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전북의 뿌리와 처지를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상식에서 윤석정 총재는 “두 분의 삶은 고향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한 지역의 문화와 자긍심을 높여주는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라며 “현장을 발로 뛰며 기록하고, 어려움 속의 이웃을 살피는 활동은 전북이 더욱 특별한 자치도로 성장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인물이 추천되어 지역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분들의 공적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O만호 기자

남원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추진 효과 ‘톡톡’

일자리 창출·세수 확충 등

남원시는 '2025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충의 다양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신노년 세대 역량을 활용해 지역 등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남원시는 지난 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약하며 참여 지자체로 승인받아 처음 시행하게 됐다.

지원 조건은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월 80시간 및 5개월 이상 근무 △월평균 급여 76만2,000원 이상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70만원의 국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0개 부서를 발굴하고, 부서별 협조를 받아 각 부서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인 자체 사업의 6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45명을 사업 참여자로 신청하여 선정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서류 심사 및 일괄



검토 후, 사업 참여 45명에 대한 7,4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승인하였으며, 시는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국비 7,400만원을 지원받아 세수를 확충하였다.

권혜정 통합물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국립군산대 재학생 5명, 국립생태원장상 수상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오연풍)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재학생 5명이 우수학생으로 선정되어 국립생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9일 국립생태원 생태교육관에서 개최됐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학습 멘토링 진로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참여도와 성실성을 보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에게는 국립생태원장상과 부상으로 은누리상품권(30만원정)이 전달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농장 대표, 윤봉읍에 희망2026 나눔 성금

남원시 윤봉읍 관계자는 남원농장 김종성 대표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종성 대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과 복지 소외계층 발굴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최근 몇 년간 매해 기부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500만원은 윤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RISE사업단,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RISE사업단은 지난 8일 전주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다함께 봉사단 사랑의 김장 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다함께 봉사단 소속 성인학습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김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가 효자동 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금동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 금동 관계자는 관내 우리가정의학과의원(원장 송복순, 오철웅)에서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해 왔다.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014년부터 매년 500만 원씩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며, 올해까지 누적 기탁액 6,000만원을 달성했으며, 2020년에는 수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해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학생들이 모은 라면 1004개 저소득층에게

전주시 완산구청(구청장 김용삼)은 10일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학생들이 모은 라면 1,004개를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하는 전달식을 했다.

이번 기부에서 전달된 라면은 전주대학교 내 성품채취 수업의 수강생들이 실시한 모은 것으로 학교 밖으로 배움을 실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류두현 전주대학교 총장은 “관심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전달해 주신 전주대학교와 학생 및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받은 물품은 추운 겨울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완산구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정읍시니어클럽, '걱정 덜어주기' 사업 호응

정읍시니어클럽(관장 박환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5년 연속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클럽은 올해도 '걱정덜어주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100가구에 겨울나기 필수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눴다.

지난 2021년 첫발을 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됐다. 정읍시니어클럽은 이번 지원을 위해 기관 후원금 2888만원을 투입해 온열매트와 김치를 마련했으며, 주식회사 아이투엘로부터 경추베개를 후원받아 총 3종으로 구성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지원 대상은 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경제적 형편이 녹록지 않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각 사업단에서 추천받은 대상자에 대해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00가구를 확정했으며,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이용해 물품을 전달했다.

한편, 정읍시니어클럽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 한 해 31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2,6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키울 방침이다. 2026년도에는 35개 사업단에서 총 2743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참여자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부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법률서비스 지원 협약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은 지난 9일, 유명수 법무사 사무소와 어르신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법률문제를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첫 법률상담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상담 신청은 복지관 방문 또는 전화(063-620-5883)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출판기념회= 일시: 20일, 장소: 국립군산대학교 교춘교홀